

HRI 한반도 평화지수 : 2012년 3/4분기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 높다

홍 순 직 · 이 용 화 /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 남북 관계 현안 설문조사 결과

최근 남북 관계 단절의 장기화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 등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의 경색국면 완화와 남북간 신뢰회복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증대하고 있어,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제언에 대한 북한관련 전문가 112명에 대한 설문조사(8. 8~20)를 실시했다.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전문가 모두 대북정책 전면 전환과 유연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주문했다. 특히 남북 간 체결된 주요 합의 내용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다수의 전문가가 계승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역점과제로서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정상회담 추진'을, 경제 분야에서는 '남북 관광과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 활성화'를,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사회·문화 교류 확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에 차이 없이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남북 간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향적 처리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5.24 조치 해제 등 중단된 남북 경제 교류를 즉각 재개를 포함해 개성공단 유지·확대 및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등에 대해서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 2012년 3/4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2012년 2분기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3분기 기대지수는 상승세로 반전하여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3.0p, 13.6p 상승하였다. 이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강행에도 불구하고 추가 도발이 없었고, 6.28 경제관리조치 등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3/4분기 기대지수를 조사한 결과, 다음 5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2/4분기 전문가 평가지수가 2분기 만에 상승세로 반등하였다. 둘째,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치도 대폭 상승하였다. 셋째, 교류지수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넷째,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의 격차가 감소하여, 현 상황 및 미래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감이 향상되었다. 다섯째, 성향별 평가에서는 성향 구분 없이 대체로 지난 분기에 비해 남북관계가 크게 호전된 것으로 평가했고, 특히 보수 성향의 평가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남북 관계 현안 설문조사 결과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전문가 모두 ‘전면 전환’ 혹은 ‘유연한 수정’ 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보수 성향마저 기존 대북정책 기조 유지에 대해 응답자가 전무했다. 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이 ‘전면 수정이 아니라도 유연하게 수정’에 높은 응답률(90.3%)을 보였고, 진보 성향은 ‘대북정책 전면 전환’ (73.7%)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전체비율	정치성향		
		보수	중도	진보
대북정책 전면 전환	50.0%	9.7%	58.1%	73.7%
전면 수정이 아니라도 유연하게 수정	50.0%	90.3%	41.9%	26.3%
기존 대북정책 기조 유지	0.0%	0.0%	0.0%	0.0%

남북 간 합의내용 계승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87.5%가 계승해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 하여, 대북정책에 있어 기존의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성향별로는 ‘매우 동의한다’에 진보 성향(71.1%)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보수 성향(12.9%)은 낮은 응답률을 보여 성향 별 차이가 나타났다.

남북 간 합의 내용 계승 여부	전체비율	정치성향		
		보수	중도	진보
매우 동의한다	42.0%	12.9%	37.2%	71.1%
동의한다	45.5%	54.8%	55.8%	26.3%
동의하지 않는다	8.9%	22.6%	7.0%	0.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6%	9.7%	0.0%	2.6%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역점 과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 경색국면 타개와 신뢰회복을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정상회담’, ‘남북 관광과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HRI 한반도 평화지수 : 2012년 3/4분기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 높다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전문가의 50.0%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정상회담 추진’에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차기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당국간 대화채널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정치 성향별로 응답률에 차이가 있었는데, 보수 성향(35.5%)은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문제 진전’에 무게를 실은 반면, 진보 성향(23.7%)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에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역점 과제 (정치·외교 분야)	정치성향			
	종합	보수	중도	진보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정상회담 추진	50.0%	38.7%	46.5%	63.2%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20.5%	9.7%	25.6%	23.7%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문제 진전	17.9%	35.5%	11.6%	10.5%
한미·한중의 균형외교 추진	9.8%	9.7%	16.3%	2.6%
군사회담 정례화 추진 (재래식 무기 감축 등)	1.8%	6.5%	0.0%	0.0%

경제 분야에서는 ‘남북 관광과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 활성화’(38.4%)와 ‘남북 경협법·제도화 및 북한 개혁·개방 지원’(29.5%)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되었다. 이는 금강산·개성 사업 등의 기존 사업 확대를 통한 상호 신뢰회복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성향별로 응답률에 차이가 있었는데, 진보는 ‘남북 관광과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 활성화’(50.0%)에, 보수 성향은 ‘남북경협법·제도화 및 북한 개혁·개방 지원’(35.5%)에 비교적 응답률이 높았다.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역점 과제 (경제 분야)	정치성향			
	종합	보수	중도	진보
남북 관광과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 활성화	38.4%	38.7%	27.9%	50.0%
남북경협법·제도화 및 북한 개혁·개방 지원	29.5%	35.5%	34.9%	18.4%
남북 경제공동체 추진	17.0%	9.7%	20.9%	18.4%
북한경제 회생 지원 (SOC투자 확대 등)	8.9%	6.5%	9.3%	10.5%
기타	7.3%	9.7%	7.0%	2.6%

HRI 한반도 평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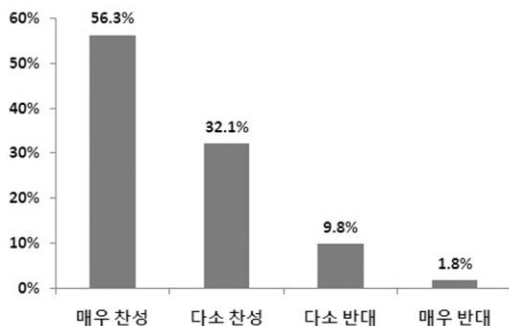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사회·문화 교류 확대’(35.7%), ‘이산가족 문제 해결’(32.1%),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31.3%) 모두 차이 없이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보수 성향(41.9%)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에는 진보 성향(34.2%)이 보수 성향에 비해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성향별로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역점 과제 (사회·문화 분야)	정치성향			
	종합	보수	중도	진보
사회·문화 교류 확대 (문화·예술·학술·스포츠 등)	35.7%	35.5%	39.5%	31.6%
이산가족 문제 해결	32.1%	41.9%	25.6%	31.6%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31.3%	22.6%	34.9%	34.2%
문화재·역사 유적지 공동 발굴 사업 추진	0.9%	0.0%	0.0%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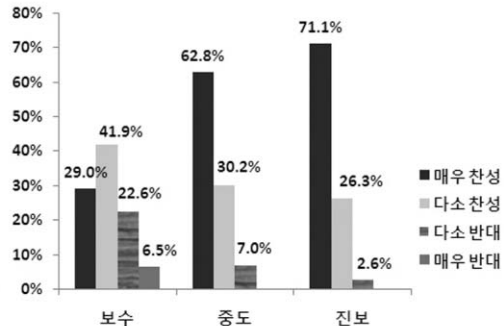
차기정부의 남북 간 현안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향적 처리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남북간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은 5.24 대북조치 해제, 개성공단 유지·확대 여부,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5.24 대북조치 해제를 통해 중단된 남북 경제 교류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는 질문에 전체 112명의 응답자 중 9명이 ‘찬성’(매우찬성 56.3%+찬성 32.1%)한다고 응답했다. 정치 성향 별로는 상당수의 진보(71.1%)가 ‘매우 찬성’을 했지만, 보수(22.6%)의 경우 ‘다소 반대’의 응답이 높아, 정치성향 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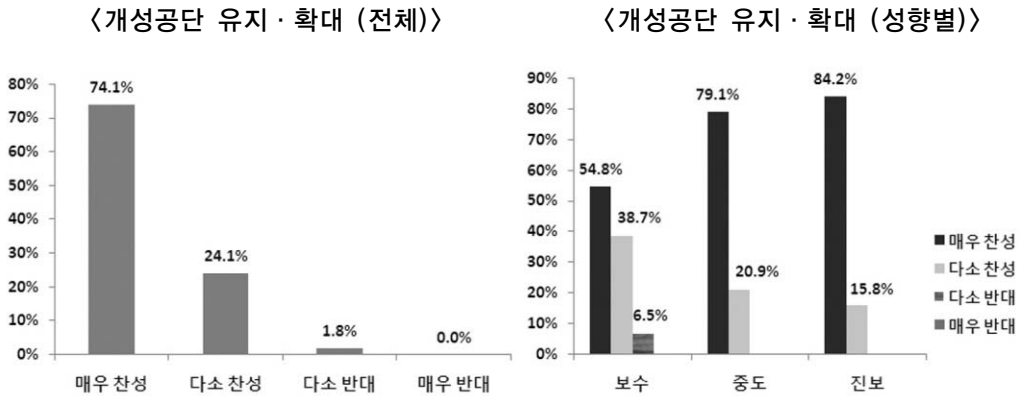
〈5.24 대북조치 해제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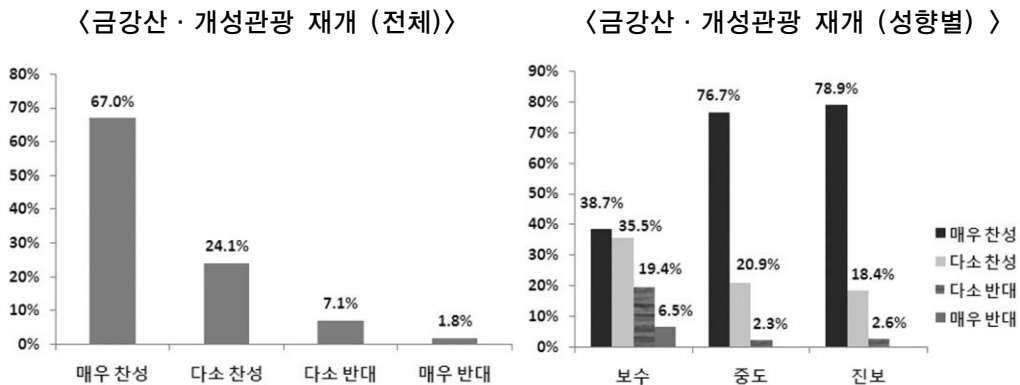
〈5.24 대북조치 해제 (성향별)〉



“개성공단은 유지·확대되어야 한다”에 대한 질문에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은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개성공단 유지·확대(98.2%)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앞의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역점 과제(경제 부문) 중 1순위인 ‘남북 관광과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한 재확인으로 볼 수 있다. 정치 성향별로 응답률에 차이가 있었는데, 보수(53.8%)에 비해 진보(84.2%)의 ‘매우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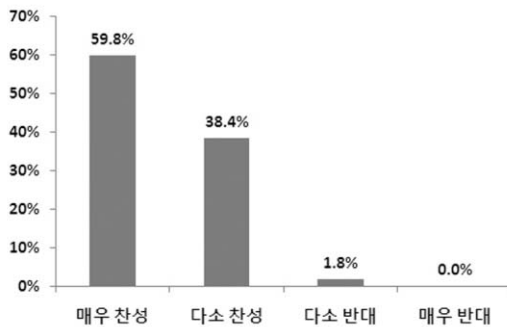
“금강산·개성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에 대한 질문에 금강산·개성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매우 찬성’ (67.0%)과 ‘다소 찬성’ (24.1%)의 비율이 높아, 전문가의 절대 다수가 찬성에 응답했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보수의 경우도 찬성의 비율(74.2%, 매우 찬성 38.7%+찬성 35.5%)이 반대의 비율(25.9%, 매우 반대 6.5%+다소 반대 19.4%) 보다 3배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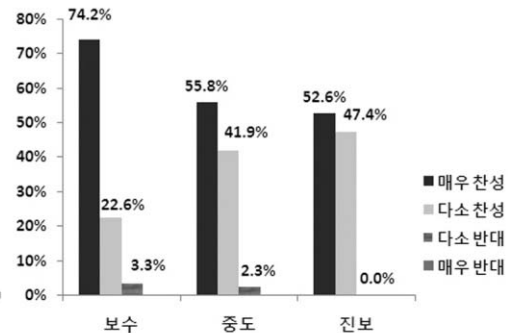
HRI 한반도 평화 지수

“북한 비핵화를 위해 주변국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에 대한 질문에 전반적으로 찬성(98.2%)의 비율이 높지만, ‘매우 찬성’ (59.8%)의 비율이 다소 낮게 응답되었다. 정치 성향별로 응답률이 달랐는데, 보수의 경우 상당수가 ‘매우 찬성’ (74.2%)에 응답하여 중도(55.8%)와 진보(52.6%)성향과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이 중도·진보 성향의 전문가에 비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주변국 공조 강화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핵화 주변공조 강화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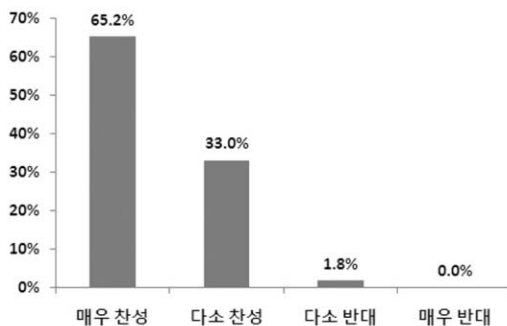


〈비핵화 주변공조 강화 (성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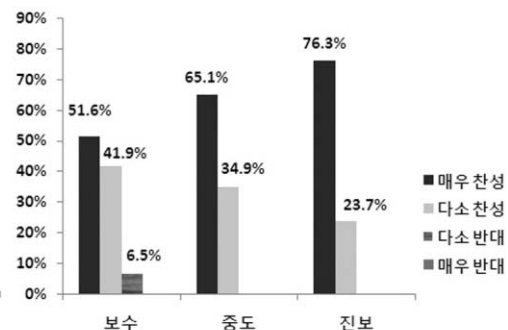


“인도적 지원 및 남북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에 대한 질문에는 전문가의 절대 다수인 98.2%가 ‘매우 찬성’ 한다고 응답했다.

〈인도적 지원·교류 강화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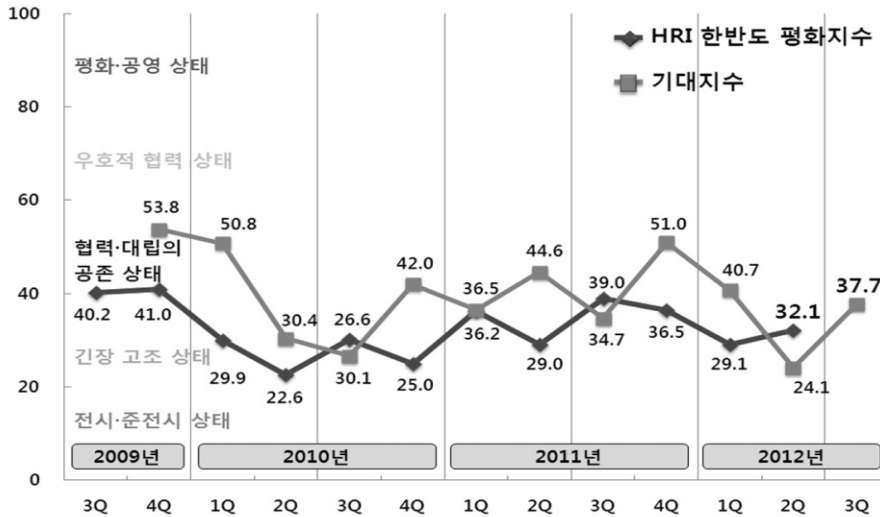
〈인도적 지원·교류 강화 (성향별)〉



2012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2012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32.1을 기록하여 남북 간 긴장상태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4분기 29.1을 기록했던 한반도 평화지수는 전기 대비 3.0p 소폭 상승한 32.1을 나타냄으로써 2011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2년 3분기 기대지수도 2011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여 전문가들의 2012년 3/4분기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13.6p 큰 폭으로 상승한 37.7로 나타나 남북관계는 2분기의 '긴장 고조 상태'에서 '협력과 대립의 공존 상태'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2012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추이〉



특징 분석

전문가 평가지수와 기대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반전했으며, 특히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지수가 대폭 상승했다. 2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지난 분기의 18.6보다 8.6p 상승한 27.2를 기록했고, 정량분석지수는 37.0을 기록하여 전 분기 대비 2.5p 소폭 하락하였다. 지난 분기 큰 폭으로 감소했던 전문가 평가지수는 상승세

HRI 한반도 평화 지수

로 반전하였으며, 이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추가 도발이 없음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문가들의 기대지수도 지난 분기의 하락세에서 반전하여 큰 폭으로 상승,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낮아지는 한편, 6.28 경제개선조치 등 새로운 경제정책을 도입하려는 조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 간 격차가 감소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관적 평가인 전문가평가지수와 객관적 평가인 실적치로 보는 정량분석지수 간의 격차(| 전문가평가지수 - 정량분석지수 |)는 9.8p로, 지난 분기 20.9p에 비해 큰 폭으로 격차가 감소되었다. 이는 전문가평가지수가 전분기의 18.6에서 27.2로 8.6p 큰 폭으로 상승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2010~2012 HRI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 결과 〉

구 분	HRI 한반도 평화지수					기대지수
		전문가 평가지수	정량분석지수			
			이벤트지수	교류지수		
'12-2분기	32.1 (▲3.0)	27.2 (▲8.6)	37.0 (▽2.5)	36.3 (▽5.7)	37.7 (▲0.8)	37.7 (▲13.6)
'12-1분기	29.1 (▽7.4)	18.6 (▽13.3)	39.5 (▽1.6)	42.0 (▽9.4)	36.9 (?6.1)	24.1 (▽16.6)
'11-4분기	36.5 (▽2.5)	31.9 (▽8.1)	41.1 (▲3.1)	51.4 (▲3.9)	30.8 (▲2.3)	40.7 (▽10.3)
'11-3분기	39.0 (▲10.0)	40.0 (▲18.2)	38.0 (▲1.9)	47.5 (▲2.3)	28.5 (▲1.6)	51.0 (▲16.3)
'11-2분기	29.0 (▽7.2)	21.8 (▽9.3)	36.1 (▽5.2)	45.2 (▽2.8)	26.9 (▽7.7)	34.7 (▽9.9)
'11-1분기	36.2 (▲11.2)	31.1 (▲15.6)	41.3 (▲6.8)	48.0 (▲15.2)	34.6 (▽1.6)	44.6 (▲8.1)
'10-4분기	25.0 (▽5.1)	15.5 (▽14.9)	34.5 (▲4.7)	32.8 (▽2.1)	36.2 (▲11.6)	36.5 (▽5.5)
'10-3분기	30.1 (▲7.5)	30.4 (▲19.5)	29.8 (▽4.6)	34.9 (▲1.6)	24.6 (▽10.8)	42.0 (▲15.4)
'10-2분기	22.6	10.9	34.4	33.3	35.4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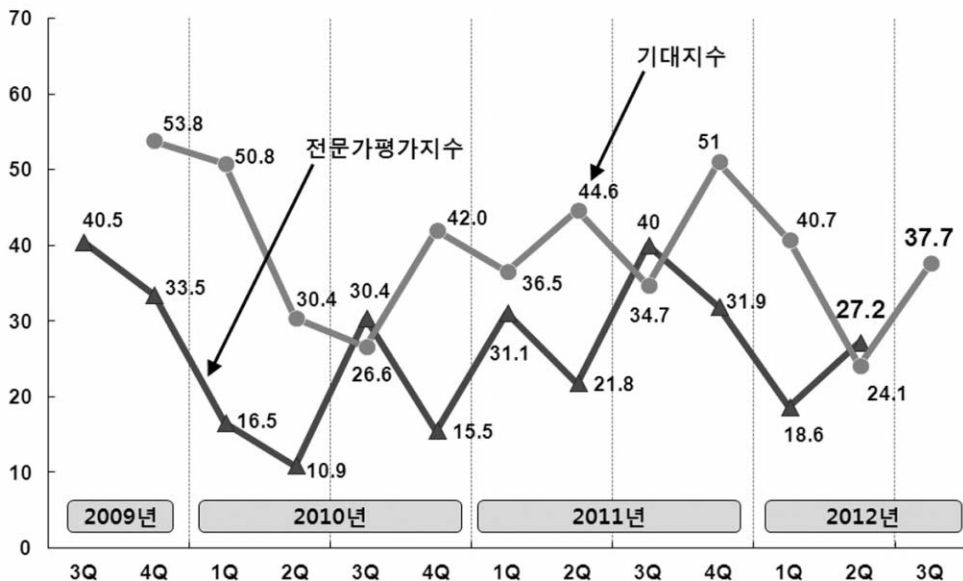
주 : ()내는 지난 분기 대비 증감을 표시(p)

항목별 평가

전문가평가지수는 상승세로 반전하여 ‘긴장 고조 상태’로 개선되었으며, 실적에 기초한 교류지수도 개성공단 교역액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했다.

전문가평가지수(2012년 1분기 : 18.6 → 2012년 2분기 : 27.2)는 지난 분기의 ‘전시·준전시’ 상태를 벗어나 ‘긴장 고조 상태’의 초기 수준으로 진입하였다. 2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8.6p 상승한 27.2를 기록하면서, 2011년 3분기부터 40.0→31.9→18.6의 하락세에서 반등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감이 나타났다. 2012년 3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13.6p 상승한 37.7을 기록함으로써, 전문가들의 2012년 3/4분기의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은 대폭 상승하였다. 이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와 개정 헌법에 ‘핵 보유국’을 명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무력 도발로 이어지지 않았고, 북한의 개혁·개방 조치 움직임 가시화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2009~2012 전문가평가지수와 기대지수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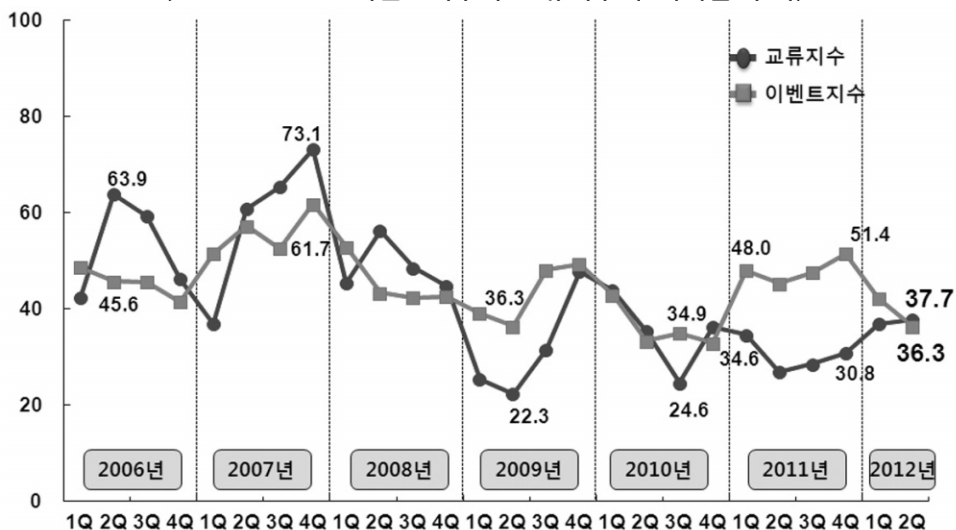
HRI 한반도 평화 지수

2분기 정량분석지수(2012년 1/4분기 : 39.5 → 2012년 2/4분기 : 37.0)는 지난 분기의 39.5보다 2.5p 하락한 37.0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객관적 실적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분석지수의 하락은 경제·사회·인도적 지원 분야의 '교류 지수'가 0.8p 소폭 상승한 반면, 정치·군사 분야의 '이벤트 지수'가 5.7p 하락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벤트지수(2012년 1/4분기 : 42.0 → 2012년 2/4분기 : 36.3)는 지난 분기 대비 5.7p 하락한 36.3을 기록함으로써 남북 간 정치·군사적 관계는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고 존엄 모독'과 관련한 남한 정부에 대한 비판과, 광명성 3호 발사와 이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발표 등 긴장고조 사건 지속으로 하락세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류지수(2012년 1/4분기 : 36.9 → 2012년 2/4분기 : 37.7)는 전기 대비 0.8p 상승한 37.7을 기록하여 전기의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교류지수의 상승은 남북관계 경색 지속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교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9% 증가(2011년 2분기 : 4억 3천여 달러→2012년 2분기 : 4억 7천여 달러)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6~2012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의 시계열 추이〉



주 : 이벤트지수는 정치·군사 분야의 변화를, 교류지수는 경제·사회·인도지원 분야의 변화를 표시

성향별 분석

대체로 지난 분기에 비해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가 크게 호전되었으며, 특히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의 평가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평가지수는 성향을 떠나 10p 내외의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기록함으로써,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지난 분기보다 크게 나아졌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성향별 특성을 고려하면 보수 성향의 2분기 평가지수와 3분기 기대지수의 상승폭은 각각 12.2p, 19.1p로, 이는 진보 성향의 5.0p, 6.2p에 비해 약 2~3배에 달한다. 이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미국을 비롯한 중국의 대북 강경 발언과 한미 공조체제 강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統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

구 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전문가 평가지수	HRI 평가지수	기대지수
	현재	예상	현재	예상	현재	예상			
'12. 2분기	30.1 (▲12.2)	41.0 (▲19.1)	29.5 (▲11.7)	37.3 (▲14.7)	26.1 (▲5.0)	35.6 (▲6.2)	27.2 (▲8.6)	32.1 (▲3.0)	37.7 (▲13.6)
'12. 1분기	17.9 (▽19.1)	21.9 (▽23.0)	17.8 (▽9.8)	22.6 (▽17.1)	21.1 (▽11.0)	29.4 (▽8.7)	18.6 (▽13.3)	29.1 (▽7.4)	24.1 (▽16.6)
'11. 4분기	37.0 (▽2.5)	44.9 (▽5.7)	27.6 (▽12.3)	39.7 (▽12.0)	32.1 (▽5.2)	38.1 (▽12.3)	31.9 (▽8.1)	36.5 (▽2.5)	40.7 (▽10.3)
'11. 3분기	39.5 (▲11.5)	50.6 (▲11.2)	39.9 (▲23.1)	51.7 (▲23.4)	37.3 (▲14.6)	50.4 (▲13.8)	40.0 (▲18.2)	39.0 (▲10.0)	51.0 (▲16.3)
'11. 2분기	28.0 (▽1.9)	39.4 (▽4.2)	16.8 (▽16.2)	28.3 (▽18.8)	22.7 (▽3.5)	36.6 (▽0.7)	21.8 (▽9.3)	29.0 (▽7.2)	34.7 (▽9.9)
'11. 1분기	29.9 (▲15.5)	43.6 (▲11.3)	33.0 (▲8.8)	47.1 (▲5.6)	26.2 (▲15.8)	37.3 (▲2.0)	31.1 (▲15.6)	36.2 (▲11.2)	44.6 (▲8.1)
'10. 4분기	14.4 (▽19.2)	32.3 (▽14.4)	24.2 (▽6.1)	41.5 (▲0.7)	10.4 (▽19.0)	35.3 (▽3.4)	15.5 (▽14.9)	25.0 (▽5.1)	36.5 (▽5.5)
'10. 3분기	33.6 (▲20.6)	46.7 (▲15.7)	30.3 (▲20.8)	40.8 (▲18.4)	29.4 (▲18.6)	38.7 (▲9.3)	30.4 (▲19.5)	30.1 (▲7.5)	42.0 (▲15.4)
'10. 2분기	13.0	31.0	9.5	22.4	10.8	29.4	10.9	22.6	26.6